

착한 글, 착한 말로 좋은 세상 만들어요!

경기도 문화의전 당에서 '120만 경기도 선플자원봉사단' 출범식



첫 번째줄 왼쪽부터 천강 중국청도선플홍보대사, 다섯 번째 김진표 전 교육,경제부총리, 여섯 번째 유영재 선플경기본부 상임회장, 일곱 번째 정미경 국회의원, 여덟 번째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건국대 교수), 아홉 번째 민병도 선플경기본부 공동회장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9월 18일(금) 오후 2시,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유영재 선플

경기본부 회장, 민병도 공동회장과 경기도에서 선플운동을 전개할 선플지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0만 경기도 선플자원봉사단출범

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 선플 자원봉사단 출범을 축하하는 영상을 보내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인구의 10%인 120만명이

선플운동에 참여한다면 인터넷 문화가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 선플운동을 통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플운동을 한국에서 최초로 창안한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선플 특강을 통해 "선플은 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선플을 다는 사람, 선플을 받는 사람, 선플을 읽는 사람, 그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선플을 다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모두 선플달기에 동참해서 행복해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플운동경기본부 유영재 회장은 "경기도에서 120만명이 응원과 배려의 선플운동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경기도에서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다.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방한한 중국 청도 선플홍보대사 천강은 "중국 청도에서도 선플운동을 열심히 홍보하여 선플운동을 통해 중국과 한국이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플운동은 현재 7천여 개의 학교와 단체가 동참하고 있으며, 울산 교육청의 경우 선플운동을 도입한 이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절반이하로 감소하여 선플운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은태 기자



선플인성교육도서 '결국,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저자 민병철 건국대 교수) 출판 기념회가 10월 13일(화)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종모 ds시장, 임내현 국회의원, 강창희 국회의원(전국회의장), 손경식 CJ그룹회장,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건국대교수), 이준현 국회의원, 이용규 중앙대학교 총장)

'선플인성교육도서 출판기념회' 성황 강창희 전의장, 손경식 CJ회장 등 참석

선플인성교육도서 '결국,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저자 민병철 건국대 교수) 출판기념회가 10월 13일(화) 오후 6시 30분, 리츠칼튼호텔에서 강창희 전 국회의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국회 선플정치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들과 선플지도자 등 300여명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가진 청년들이 많아지면 건강한 사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선플운동을 창안한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인성보다는 스펙쌓기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바른 인성이야말로 행복한 성공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고 강조했다.

'결국,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민병철 교수가 사이버 상에서 악플 대신 응원과 배려의 선플문화 확산 및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선플운동'과 대학에서 '모바일 창조영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창조적 글로브 인제 양성을 위해 강의해온 내용을 정리한 이 시대 청춘을 위한 멘토링이다. 이날 행사는 방배 어린이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내빈들의 축사와 서평, 저자 민병철 교수의 인사말, 선플국제전선대사 판넬리더 이사벨의 축가와 축하떡케이크 커팅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에 출간된 선플인성교육 도서의 저자 인제는 선플문화 확산을 위해 선플재단에 기부된다.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회장이자 민병철 교수의 인사말, 선플국제전선대사 판넬리더 이사벨의 축가와 축하떡케이크 커팅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에 출간된 선플인성교육 도서의 저자 인제는 선플문화 확산을 위해 선플재단에 기부된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선플운동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야 할 인성운동이며 한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정신문화 운동이다"라고 말했다. CJ그룹 손경식 회장은 "남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선플운동을 통해 좋은 인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에서 선플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변화해나가는 것을 지켜봐왔다. 선플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성에 밝은 미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지사 지우 위보 대표는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선플운동은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는 운동이다. 현재 중국에서도 수많은 네티즌들이 동참하는 인터넷 문화운동이다"고 말했다. 선플운동본부는 메르스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한 응원 캠페인, 봉사정신이 투철한 산타 경찰관 유정수 경위 응원캠페인, 중국 양쯔강 여객선 참사사고 추모선플달기 캠페인, 임신 중에도 악플과 싸우며 방송에 일하는 미국 기상캐스터 케티 페링거 응원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선플달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백미경 기자

'대전 100만 선플자원봉사단' 청소년 선플 캠페인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9월 12일(토) 오후 3시, 대전 지역에서도 노은역까지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 대전 둔산경찰서 김기용 서장, 민병주 국회의원과 3,000여명의 대전 청소년 선플자원봉사단이 참가한 가운데 선플 거리 캠페인과 선플선언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지역 청소년 선플자원봉사단 학생들이 시민들에게 악플피해와 선플운동의 필요성을 알리고 선플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사이버 선플서명 (<http://sign.sunfull.or.kr>)을 받았다.

대전둔산경찰서 김기용 서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로 나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같은 둔산경찰이나 경찰과 함께하는 선플달기 행사에 참여하여 감사하다"며 "선

플 착한나무에 선플이 달린 것처럼 좋은 열매가 달리듯이 좋은 말과 착한 글이 선플 착한나무에 달려서 주변에 숲이 되고 아름다운 선플 동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선플 좋아요"를 외쳤다.

선플운동을 한국에서 최초로 창안한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5월 31일 광화문에서 한중일 평화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행사를 했고 오늘 대전 선플봉사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더욱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플을 달면 세사람이 행복해 집니다. 선플을 읽는 사람, 선플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 선플을 다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들, 부모님들, 친구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응원의 댓글을 달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플운동본부 고문인 민병주 국회의원은 "착한 댓글을 달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의 착한 마음으로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좋은 날씨를 만들어 줬다"며 "국회에서 아름다운 말을 쓰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국회의원 선플상을 받게 됐고, 좋은 운동을 우리 지역에서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마련했다.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상대방을 생각해서 먼저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야하고, 선한 말, 선한 글, 착한 행동이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모두가 행복하면 그 속에서 나도 행복한 것이다"며 "에.고.미.수 예, 고맙습니다, 미안



대전 청소년 선플자원봉사단이 9월 12일 대전 지역과 노은역에서 선플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앞줄 왼쪽 세번째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여섯번째 민병주 국회의원, 일곱번째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건국대 교수), 아홉번째 김기용 대전둔산경찰서장)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착한 말, 착한 글로 인터넷에 선플달기를 해서 우리 모두 행복하고 꿈을 이루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대전 지역에서 노은역까지 시

민들에게 선플거리캠페인을 진행한 청소년 선플자원봉사단 학생들은 노은역 광장에서 선플선언식과 선플달기 메모를 선플나무에 다는 '선플착한나무행사'를 진행했다.

이경 기자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회사
'미래테크윈', '미래코리아'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 「세계 최초 흡시어터 스피커 케이스 개발」
- 「세계 최초 친환경 곡면 디자인핸들 개발」
- 「세계 최초 테두리가 없는 초슬림 베젤 개발」

세계 최첨단 Alumite 기술을 적용한 튼튼한 디자인으로
통신기기 분야, Handphone, Camera, CarAMP, 냉장고 DVD Front speaker 까지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미래테크윈', '미래코리아'의 숨겨진 담겨져 있습니다.





9월 8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선플 협약식'을 갖고 참가한 시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광주광역시의회, 선플운동 동참 '선플 우수의원 선정 협약식' 가져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는 9월 8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선플운동에 동참하며 (재)선플재단, 호남미래포럼, 전남일보사와 함께 '선플 우수의원 선정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서 조영표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김성호 호남미래포럼 공동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 등 4개 기관·단체대표들이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말씨와 태도, 행동을 실천하는 선플운동 실천에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조영표 의장은 "의명성을 악용한 악플들은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폭력, 왕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광주도 518민주운동에 대한 악플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악플을 추방하고 선플로 용기를 주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름다운 말과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병철 이사장은 "선플운동은 2007년 한 대학에서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며 19대 국회의원 294명과 서울시 의회의원 105명께 서명을 받는 등 각계각층으로 전파되

고 있다"며 "작은 운동이 범국민 운동으로 번져가 바쁜말과 고운말을 통해 갈라진 인성을 통합하고 영호남의 화합과 대한민국의 발전과 세계의 인성교육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호남미래포럼 대표는 "지난해 선플의 날 행사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등 호남비하를 당하는 우리가 먼저 화해와 용서를 하기위해 선플운동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광주·전남 시·도민이 좋은말 좋은글 좋은 행동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자"고 밝혔다.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은 "좋은일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선플운동 실천은 여러 가지 어렵다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언론으로 선플운동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선플우수의원 선정은 광주지역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편성된 모니터단이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이뤄지는 의원들의 임시회 회의록 발언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제정을 통해 11월 중 우수의원 5명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조용태 기자

선플재단, '2015 공익 창조업 개발교육' 실시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10월 24일(토) 10시부터 17시까지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관에서 '2015 공익 창조업 개발교육'을 실시했다.

'2015 공익 창조업 개발교육'은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

기 위한 '2015 공익 창조업 공모전' 본선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엠비즈메이커 등을 교육하고, 직접 어플을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이루어졌다.

본선심사는 11월 7일(토) 오후 4시 선플재단 사무실에서 3분발표와 2분 질의응답으로 심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10월 24일(토) 건국대에서 '2015 공익 창조업 개발교육'을 실시했다.

해성여자고등학교 언어문화개선 선플선언식



'청소년 인성교육은 선플로부터!' 청소년들의 인터넷 언어순화를 통한 인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성여자고등학교가 선플운동에 동참하였다.

선플재단과 KBS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후원으로 9월 16일 해성여자고등학교에서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해성여자고등학교 선플선언식'을 개최했다.

박미경 기자

경찰청 - 선플운동본부, 안전한 사이버공간 만든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선플운동본부와 함께 '안전하고 아름다운 사이버공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13일 경찰청 회의실에서 강신명 경찰청장과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7월 16일, 민병철 이사장은 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단'에 위촉된 바 있으며, 양 기관은 이때부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논의를 시작하여 오늘 협약식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청과 선플운동본부는 협업을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진행 중인 '사이버안전 콘텐츠 공모전(9.1~10.20)'에 함께 참여하고, 선플운동본부 홈페이지 '주제별 선플달기'에 경찰청 관련 게시판을 개설 ▲현장영웅

▲선행미담 ▲용감한 시민 등의 사연에 선플응원으로 아름다운 인터넷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민간부에서 활약이 큰 선플운동본부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사이버공간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협력은 필연적이며,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은 "그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추진해 왔지만, 사이버공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과의 협약 체결은 그 의미가 더욱 크며, 아름다운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스톱킹 등,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악성 댓글이나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은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연예인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압축 모두 "자살로 이어질 정도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크며, 가해자가 젊은 층인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날로 커지는 예방 및 홍보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경 기자

원더걸스, 2AM, miss A 등 JYP아티스트 선플동참

JYP엔터테인먼트, 강남경찰서 선플운동 실천협약 및 홍보대사 위촉선미 "선플 많이 달아달라", 헤림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 사용 다짐"



9월 7일(월), 강남경찰서에서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첫번째줄 왼쪽 두번째부터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김학관 강남경찰서 서장,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두번째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원더걸스 선미, 원더걸스 헤림, 미스A 지아, 2AM 조권)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9월 7일(월), 강남경찰서 6층 중회의실에서 JYP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욱), 강

남경찰서(서장 김학관)와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인성교육과 건전한 사이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서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2AM 조권, miss A 지아와 원더걸스 선미, 헤림

조용태 기자

'사제동행 봉사단' 전국 자원봉사 수상 상금 기부

"선플달기를 통한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도 훌륭한 자원봉사활동"



선플달기 캠페인 모습 (김현성)

김해신안초(교장 이윤옥)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이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2015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사제동행 봉사단은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자 아침 등교길 선플 플래시몹 공연 및 선플 홍보 캠페인, 주말 선플 걷기 대회, 선플 포어 및 포스트 공모전 등 다양한 '선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친절함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학생들이 선정한 친절가게를 찾아 인정해 주는 '환대실천 캠페인'도 진행하여 지역사회에 친대문화가 조성되는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해 관광지를 알리는 '김해 관광도우미 자원봉사활동'도 실천하고 있다.

학생들이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청소년나 빨래 등을 하는 소일거리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선플 달기 및 환대실천 캠페인 등 새로운 자원봉사 영역을 찾아 활동을 하는 모습이 큰 귀감이 되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봉사단은 "지난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상 수상을 통해 받은 상금 50만원에 기부금 50만원을 더해 100만원을 기부했던 봉사단이 또다시 '상금 1+1기부'를 실천하고 있다"며 "이번에 받게되는 상금 100만원에 추가로 봉사단 회원들이 100만원을 모아 200만원을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경 기자

언어문화개선 청소년 공감콘서트 큰 호응

청소년들의 언어개선 실천 사례발표, 공연 등 축제의 한마당 열려



9월 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언어문화개선 청소년 공감콘서트'를 마치고 수상자들과 한지리에 모였다.

국립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9월 5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 한광옥 위원장,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시민사회단체장, 각계 관계자 및 청소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의 언어문화개선 축제의 한마당인 '언어문화개선 청소년 공감콘서트'를 개최했다.

'청소년 공감콘서트'는 지난 5월부터 대전(5.30), 서울(7.11), 광주(7.18), 대구(7.23) 등 4대 권역에서 '청소년 1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종합 성과보고대회 겸 청소년들의 축제형태로 마련되었다.

이번 공감콘서트는 권역별 청소년원탁토론회, 말문화개선공모전 등 청소년의 언어개선 성과 및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우수학생에 대한 시상식(전국 청소년말문화개선 공모전, 언어개선 실천 사례보고대회)과 함께 권역별 청소년원탁토론회 영상, 청소년 언어개선 실천보고, 청소년공모전 우수작품 전시 및 UCC동영상 상영, 소감발표, 대전순안여고 댄스 동아리와 아가펠라 그룹(원더풀) 공연 등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국립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권역별 청소년원탁토론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감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기부터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언어폭력, 욕설 등은 우리사회의 언어문화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우선 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스스로 자신의 언어문화를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사회 전반의 언어문화 회복이 국민대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청소년 말 문화 개선 공모전(7.6~8.18)'에는 총 270개 작품(UCC동영상 47편/시·소설·생활글 등 161편/사진·일러스트·카툰·포스터 등 62편)이 응모하여 이 중 24개 작품에 대해 국립대통합위원장상·교육부장관상·문체부장관상 등을 시상하였고, '언어개선 실천사례 보고대회'에서는 '청소년 100인 원탁토론회' 이후 청소년 스스로가 언어개선을 위해 노력한 실천 보고서 중 최종 6편이 선정되었다.

이경 기자

진천군 언어문화 개선 앞장

국어능력 향상위해 한글 알기 과정 운영

진천군이 바른언어사용을 위한 언어문화개선에 앞장 선다.

진천군은 쉽고 바른 우리말로 군민들과 소통하고 국어문화발전을 위해 바른 국어사용 및 언어문화 개선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군은 문화체육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무원 및 군정 시책 개발 시 알기 쉬운 우리말을 쓰도록 하는 등 국어전문기관과 연계해 직원들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말을 쉽게 알기 과정을 개설하여 공무원들의 국어 능력 향상과 업무수행 중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적극 권장에 나설 예정이다.

또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공무원들의 공무원서 바로쓰기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들의 언어문화 개선 실천 서약을 통해 바른 언어습관을 기르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부터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해 한글의 가치를 높이면 군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 기자



울산시, 한글날이 있는 10월, 다양한 한글 관련 사업 추진

2015 한글문화예술제, 창작뮤지컬 '외솔 거리의 등불 최현배'로 외솔선생 유지 이어



8일 중구 외솔기념관에서 열린 제5회 한글문화예술제 개막식에서 김기현 시장, 박영철 시의장을 비롯한 참석 내빈들이 최명종선장리기를 하고 있다.

울산시(시장 김기현)가 제 5회 한글문화예술제에서 외솔 최현배 선생 탄생 121돌을 맞이해 다양한 한글 관련 사업을 추진 및 시행해 눈길을 끌었다.

2012년 시작 때, 지금은 엄연한 한글관련 종합 예술제로 자리매김한 '2015 한글문화예술제'는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외솔기념관과 동현, 문화의 거리 등 중구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졌다.

특히 올해는 외솔 최현배 선생 탄생 121돌을 맞이하는 해여서, 외솔기념관과 생가를 중심으로 특별기획 전시와 한글을 주제로 한 시민참여 체험행사가 붐몰을 이뤘다. 외솔 최현배 선생은 1894년 10월 19일 울산 중구 동동에서 출생, 일제강점기에 맞서 우리말 연구와 보급에 앞장 선 독립운동가, 한글학자이자 교육가이다.

세계각국의 유학생들과 한글날 특집 해피버스데이 개최

한글날을 맞아 한글이 새겨진 나만의 브로치를 만드는 등 전통문화와 접목하여 세계각국 유학생들에게도 전통문화와 한글을 널리 알릴 기회를 주고 있다.



해피버스데이는 작년 20회에서 올해 25회로 확대하여, 더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의 농업·농촌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피버스데이 여정이 한글날을 맞아 유학생들과 함께 흥분하는 마블갤러리에서 펼쳐졌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해 2013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6차 산업 체험 프로그램 '해피버스데이(Happy Busday)' 시즌 3' 11번째 여정이 한글날을 맞이하여 세계각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함께 흥분하는 마블갤러리에서 펼쳐졌다.

6차 산업의 '6'은 1,2,3차 산업의 각 숫자를 더하거나 곱해도 나오는 값이다. 즉 6차 산업이란 원재료(1차)가 생산되는 농촌에서 가공상품(2차)을 만들거나 구매하고, 교육/관광 등의 다양한 서비스(3차)를 체험할 수 있는 융복합형 상품이다.

해피버스데이는 도시와 농촌을 잇는 교류 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은 농촌관광(3차 산업)을 통해 농축산물의 생산(1차 산업)과 가공(2차 산업) 과정을 직접 느끼고

이런 여정에서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세계각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온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흥분하는 마블갤러리에서 펼쳐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여정에서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세계각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온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흥분하는 마블갤러리에서 펼쳐졌다. (농림축산식품부)

바른우리말 사용을 위해 방위사업청도 나섰다.

방위사업청도 바른우리말 사용 '국어문화학교'

방위사업청(청장 장영진)은 한글날을 맞이하여 10월 7일 청 직원들에게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과 국어 사랑의 마음을 북돋우기 위해 사업관리본부(본부장 박신규) 주관으로 '국어문화학교'를 개최하였다.

이런 교육은 국립국어원에서 지원한 전문 강사가 '우리말이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우리말의 우수성과 소중함, 국어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국어를 국어답게 쓰는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오픈-병뚜개', '월러-씩씩' 처럼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외국어 또는 외래어를 쓰거나 '~을 필요로 하다', '~중에 있다'와 같이 번역투 표현임을 알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 언어문화를 되짚어보았다. 또한 '별일-내일', '구

이경 기자

한글단체들 다함께 즐기는 한글위해 '한글 알리기 필통 만들기' 행사 실시



한글 알리기 필통 만들기 행사가 열렸다. (가온한국어)

제569돌 한글날인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5 한글문화관찰치'에서 정음문화연구원과 가온한국어, 한글산업진흥원과 함께 '한글 알리기 필통 만들기'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올해 2015 한글날 행사는 '다 함께 즐기는 한글'을 주제로, 특별기획전, 공연, 전시, 체험, 학술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글 알리기 필통 만들기' 체험 행사는 다채로운 연령대와 국적의 참가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한글 알리기 필통 만들기' 체험 행사는 한글 디자인을 활용하여 한글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누구나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한글 알리기 필통 만들기' 체험 행사는 앞으로도 한글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융성'의 원동력인 '한글'을 '생활 속으로!' 문체부,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10작품 시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역,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 이하 진흥원), 네이버(대표 김상헌)는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Hangeul Idea Award)'의 수상작 10편을 선정하여, 10월 8일(목) 시상했다.

'문화융성'의 원동력인 '한글'을 '생활 속'에서 누리는 '한글'로 발전,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한 이번 공모전은, 한글 소재의 콘텐츠 또는 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적과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전 마감 결과 총 441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벨기에, 중국, 싱가포르, 터키, 카메룬, 모로코 등 21개국에서도 작품이 접수되는 등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수상작은 총 3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1차와 2차 심사에는 공모 부문인 '스마트앱·정보기술(IT)', '디자인', '이야기'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한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3차 심사에서는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심사는 한글을 알리는 데에 효과가 있는지(과급력), 소비될 수 있는 상품성을 갖추었는지(상업성), 제품 결과물이 상품화 가능한 완성도를 지녔는지(완성도), 소재의 해석 방법이 독창적인지(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선정 작품은 총 10편으로, 대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6팀에게 시상하였다. 대상(상금 1,500만 원)의 영예를 안은 '업동해결' 팀의 <하늘>은 디자인 부문

참여 작품으로, '한 글자'가 내포한 뜻과 분위기를 발광 다이오드(LED)관을 통해 시각화한 조명이다. 한 글자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가능한 한글만의 특징을 잘 드러내면서 실생활에서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응용적인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스마트앱·정보기술(IT) 부문의 <뛰어쓰기 마라톤>, 디자인 부문 <The ㅎ moment>, 이야기 부문 <세상에서 가장 귀한>도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뛰어쓰기 마라톤>은 뛰는 행동을 접목시켜 한글의 뛰어쓰기 학습을 도와주는 교육용 게임으로, 한글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The ㅎ moment>는 'ㅎ'을 소재로 한 그래픽 아트와 패턴 디자인 작품으로, 한글의 상품화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평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주의 이름을 잘 지으려는 할아버지의 정성을 한글 창작 노력에 비유한 그림책으로서 좋은 평을 받았다.

최종 심사의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이동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은 "한글에 대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면서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도를 한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아 인상 깊었다"라며, "이러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일상 속에서 한글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경 기자

“나라 빼앗겼을 때 우리 말과 글 모진 탄압 받았다”

한글창제 569돌을 맞아 행정자치부는 9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왕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계인사들과 한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축식은 '한글, 미래를 밝히다'를 주제로 한글관련 단체와 정부 인사, 시민들과 학생, 학부모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 유공자 포상과 경축공연으로 이어졌다.

김종택 한글학회 회장의 훈민정음 서문 봉독에 이어 왕교안 국무총리는 고 정재도 전 (재)한글학회 명예이사 등 10명에게 한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다.

이날 경축사에서 왕교안 국무총리는 "광복 70돌이 되는 올해 한글날은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의 말과 글도 모진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일제 강점기부터 한글을 가꾸는데 일생을 바친 외솔 최현배 선생이 "한글이 목숨이다"고 강조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이는 한글이 없으면 우리 겨레도 없다는 뜻으로 한글은 우리 겨레를 하나로 묶어주고 문화민족으로 우뚝 서게 해준 우리 모두의 자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며 "무엇보다도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로서 누구나 배우기 쉽고 쓰기에 편리하며 우리가 정보기술 강국으로 발전하고 온 국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한글이 그 토대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총리는 "최근 지구촌 곳곳에 한류

유네스코에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 한글창제 569돌 기념식 '한글, 미래를 밝히다' 주제 경축공연

열풍과 함께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나라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지난 달 경주에서 개최된 세계한글작가대회에 참석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도 "한글은 보편성을 지닌 언어로서 전 세계 소수 언어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황총리는 "말과 글의 수준

은 그 나라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과 글들이 있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말과 글이 올바른 소용의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국민언어문화 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품격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지난해 개관한 '한글박물관'에 이어 '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현재 세계 64개국 138개소에서 한글과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는 세종학당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의 경축사에 이어 한글날 노래 제창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장의 만세삼창으로 기념식을 마치고 경축공연

이 이어졌다. 경축공연은 동영상으로 제작된 한글 창제과정을 보여준 뒤,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표현한 뮤지컬과 한글노래 합창으로 이어졌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5일~9일까지 닷새 동안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2015 한글문화 큰잔치'의 일환으로 휘호경진대회, 한글 알리기 필통만들기, 한글 전각 체험전, 한글문화 큰잔치의 밤, KBS 2FM 라디오 '김성주의 가요광장 공개방송', 다함께 부르는 아름다운 우리말 음악회 등의 행사를 개최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무려

7,100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언어학자들은 이 중 3천여 개 언어가 2100년이 되기 전에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언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웹 사이트 '에스놀로그(Ethnologue)'의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한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남북한 주민과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 등을 합쳐 모두 7,720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사용자 수로 세계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육관문화훈장을 받은 고 정재도 전 (재)한글학회의 명예이사는 1968년부터 한글학회 사전 편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한글 관련 저서와 논문을 다수 발표하는 등 평생 우리 말과 글 연구에 헌신했다. 또한 정부의 교과서 집필위원과 국어심의회 표기 분과위원, 한글 맞춤법 분과위원, 방송용어 심의위원, 언론계 편집국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어문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 〈한글발전 유공 포상자〉
- 육관문화훈장 : 전 (재)한글학회 명예이사 고 정재도(잡담 정군락)
 - 육조근정훈장 :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최기선
 - 문화포장 : 비슈케크한국교육원 교사 헤가이 아리타 / 전 서울여대 교수 고 김진평(부인 이화복) / 양귀라대학교 한국어학과장 마호우트 에르탄 괴크멘
 - 대통령 표창 : 한국바른말연구원 원장 원광호 / 트아브르대학교 교수 최은숙
 - 국무총리표창 : 고쿠시칸대학교 교수 신경호 / 몽골인문대학교 교수 다바삼부 에르데네수렌

은동기 기자



한글창제 569돌 기념식 경축행사에서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정신을 뮤지컬로 표현했다.

신어 등재, 약자와 소수자 관련 단어는 배제 됐다

'낮져밤이' 신어등재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재 안해 '오피스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자'만을 지칭 표기 '오피(스)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는 여자로 뜻풀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국회 외교통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립국어원에서 제출받은 신어 자료 10여건(2005~2014년)을 분석한 결과, 신어 등재에서 탈락하는 기준 또한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예로 한 인기드라마로 유행어가 된 '시월드'는 신어 등재에서 탈락했다. 반면 '시월드'에서 유래한 '처월드'는 신어에 등재됐다. '처월드'보다 '시월드'가 더 익숙한 단어임에도 남성 전용 단어만 등재됐다는 지적이다.

특정 성을 평하는 단어나, 최근 모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으로 유행어가 된 '낮져밤이'는 신어로 등록한 반면 '성소수자', '이주노동자'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를 지칭하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는 표준어 등록은 물론 신어에도 등록시키지 않았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10년간 매년 334개에서 588개 사이의 신어를 발표해왔다. 국립국어원은 신어검색자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뉴스에서 단어를 취합한 뒤 부적절한 단어를 선별해 신어 선정에서 제외해 왔다. 2012~2014년 비공개 신어 탈락 기준은 ▲비속어 ▲사회통념상 부정적 어휘(비하어) ▲특정 도시나 개인, 단체 등과 관련된 어휘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어휘 ▲한국 사회 현실과 관련이 없는 어휘 등이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간하며 성별화된 언어 표현 최소화, 과도한 외모 관련 표현 자제, 특정 성역할을 고정관념으로 결부시킨 성차별적 표현 자제, 비하적 표현은 다른 말로 대체 등을 제안한 바도 있다.

유기홍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4년 10년간 선정된 신어 총 3663개 중에서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는 총 288개로 이 중 '~녀(걸)'는 196개, '~남'은 92개로 여성을 지칭하는 신어가 2배 이상 많았다. 이 중 여성 지칭어의 11.7%(23개), 남성 지칭어의 5.4%(5개)는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비하어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피스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자'만을 지칭하는 단어로 표기하는 한편 '오피(스)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는 여자로 뜻풀이 돼 있다. '보습아씨', '별창' 등의 경우 애초에 배제되어야 할 명백한 비속어도 신어에 선정이 됐다. 나중에 비공개(탈락)로 분류됐다.

이 밖에도 '폼질남-폼질녀', '힐링남-힐링녀'와 같이 양성성이 함께 쓰일 수 있는 단어는 288개 단어 중 259개나 되지만, 실제로 함께 등재된 신어는 33개뿐이다. '애정 결립녀', '페북녀', '촌데레남'과 같은 신어는 양성으로 쓰일 수 있음에도 특정성으로만 지칭되어 있다.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의 대부분이

'침글녀(침순하고 글래머인 여자)', '잇몸녀(웃을 때 잇몸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여자)', '스크립녀(공포영화 범인이 쓰거나 과기스러운 가면처럼 흉하게 생긴 여자)'와 같이 외모비하·칭송·생사 등 의미와 관련됐거나 부정적 의미의 단어들이었다.

반대로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는 '촌데레남(겉으로는 통명스럽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 '뇌섹남(유머가 있고 지적인 매력 있는 남자)', '꼬돌남(꼬시고 싶은 들이온 싱글 남자)'과 같이 대부분 생활상에 관한 것이나 긍정적 의미의 단어들이었다.

신어 등록 기준을 보면 비속어, 비하어 등을 배제하고 있지만 선정된 신어 현황을 살펴보면 '존-', '개-'가 포함된 '존잘남', '존애', '존맛', '위잘', '개공감', '개알바', '진지병자' 등 비속어/특정대상 비하어가 버젓이 남아있다.

한 인기드라마로 유행어가 된 '시월드'는 신어 등재에서 탈락했다. 반면 '시월드'에서 유래한 '처월드'는 신어에 등재됐다. '처월드'보다 '시월드'가 더 익숙한 단어임에도 남성 전용 단어만 등재됐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낮져밤이'는 등재, '낮이밤'은 탈락, '악혈'은 등재, '극혈'은 탈락시켰다.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비속어 등이 버젓이 신어에 등록되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표준어 등록은커녕 신어 목록에 올라오지 못했다. '퀴어', '트랜스젠더', '이주노동자', '대안학교', '발달장애'도 마찬가지다. 여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경 기자

문을 일으켰다. 수저계급론이 하나인 '흙수저'란 말도 자주 쓰인다. '서민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뜻한다. '흙수저(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대학 입시와 취업을 쉽게 하는 부잣집 아이)'란 말에서 파생했다. 강조의 의미로 '흙수저'를 쓰기도 한다. '흙수저 빙고게임'도 등장했다. 시리즈 신어 외에 별 의미 없이 말을 축약하는 행태가 늘어난 것도 올해 등장한 신어들의 특징이다. 이경 기자

처월드 시월드는 알겠는데 꼬돌남은?

2015한글날 맞아 하루가 다르게 생기는 신조어 관심 "신세대 새로운 개념 표현...은어와 명확히 구분해야"



2015 한글날을 맞아 하루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신조어가 눈길을 끈다.

'꼬돌남', '린백족', '떡부심', '이슈력'... 이 단어들은 지난해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신어(신조어)이다.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익숙해졌을 법도 하지만 여전히 외계어를 대하는 것처럼 생소하고, 그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다.

단어의 뜻은 이렇다. 꼬돌남은 꼬시고 싶은 들이온 싱글 남자를 줄여 쓴 말로,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다시 독신이 됐지만 여전히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남자를 가리킨다.

린백족(lean back+族)은 의자나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를 지칭한다.

떡부심은 먹는 일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 이슈력(issue+力)은 사람들이 서로 다루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뜻을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만 때에 따라 대화 속 이런 신어의 출현은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무분별한 신어의 양산이 올바른 국어생활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10년간 매년

300~500여 개의 신어를 발표하고 있다.

1년간 100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매체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를 조사·정리한 뒤 비속어·비하어·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어휘 등을 제외한 것이 정도임을 고려하면 매일같이 1~2개 이상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신어는 새로 생겨난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 필요에 따라서는 원활한 언어생활에 도움을 준다.

다만 표준어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문제는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기보다는 단순한 줄임말 또는 특정집단에서 사용되는 은어가 마치 신어라는 포장으로 우리의 언어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청소년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총부대 국어문화원 김정렬 책임연구원은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려면 신어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며 "다만 의미 없는 줄임말 또는 게임 용어, 휴대전화 문자를 마치 신어인 양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또래 언어의 상당수는 신어가 아니라 은어로 봐야 한다는 게 국어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마치 암호에 가까운 언어는 세대 간 의사소통 단절의 원인이 된다"며 "문제는 청소년들 역시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어휘가 반복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정말로 필요한 신어와 은어로서의 성격이 짙은 신어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과 이를 언어생활에 적극 반영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한글을 위협하는 것은 알들이 어려운 신어 뿐이 아니라 외래어의 범람도 문제다. 외래어 남용이 그 도를 넘어서 한글과 신어와 혼합되어 사용되면 국적 불명의 언어로 될 우려도 보인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들의 공문서, 행사명, 시정구호에 이르기까지 국적불명의 외래 신조어로 넘쳐나고 대학가와 도심 상가의 간판은 이미 외래어 일색이 때문이다.

2014년 수원시 시정혁신단이 발행한 시청혁신단 활동성과서에는 '여성안심취가 로드매너지 운영', '우먼하우스케어 방범서비스', '장애-FREE'와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뜻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셉테드(CPTED)' 등을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월드', '처월드', '피개수', '킨포크족', '스크립녀' 등이 최근 10년간 국어연구원에 등록된 신어들이다. 젊은세대들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줄임말과 비속어지만 이미 이러한 신어들마저도 외래어가 중심에 서있다.

언어는 세대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신조어들이 나올 수 있지만 국적을 알 수 없는 말이 되면 곤란하다. 국어사랑이 나라사랑이기 때문이다.

국어사랑을 위해 총부대 국어문화원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언어생활 개선을 위해 '우리말가꿈이' 사업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생·대학생·성인으로 구성된 각각의 지역 '우리말가꿈이'들이 매달 지역을 돌며 올바른 언어생활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열고 있다. 이경 기자

2015 확산되고 있는 시리즈 신어는

특정 부류 사람 별레에 빗댄 'OO층' 시리즈, 수저 시리즈 등

특정 부류의 사람을 별레에 빗댄 'OO층'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다. 처음에는 일베(일간베스트) 이용자들을 '일베층'이라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그후 '진지층(충대없이 진지한 사람)', '설명층(별것도 아닌 잘 설명하게 설명

하는 사람)' 등 다른 집단으로 확산되며 '맘층(자녀를 제대로 훈육하지 않는 개념 없는 엄마)'이란 말까지 나왔다. '엄어어머니'는 사회 정서상 공격하기 힘든 성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별레에 빗댄 '맘층'의 등장은 큰 파

이경 기자

'2015년 한글문화큰잔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

8일 전야제 이어 16개 공연과 한글 디자인전시 등 10개 전시회 활짝

문화체육관광부는 제569돌 한글날을 맞아 오는 10월 9일까지 '한글문화큰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한글문화큰잔치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과, 한글의 우수성 및 과학성을 함께 되새기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 광화문 중앙·북측광장, 세종로 공원, 국립한글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다 함께 즐기는 한글'을 주제로 특별기획전, 공연, 전시, 체험, 학술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8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전야제 행사가 열렸으며 1부 행사에서 한글 홍보 동영상 상영, 한글 반포식 재연, 어린이 합창단 공연, 한글 주제 공연 등이 눈길을 끌었으며 2부에서는 KBS라디오 '김성주의 가요광장'이 한글날 특집으로 진행되며, 레드벨벳, 몬스터 엑스, 키썸 등이 출연해 축하무대를 꾸몄다.

9일 한글날 행사에서는 광화문 중앙광장과 북측광장, 세종로 공원에서 무용 '춤으로 그리는 한글', 가족뮤지컬 '넌 특별하다' 등 16개 공연과 한글 디자인전시 등 10개 전시회, 체험행사 8개, 학술대회, 경연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한글사랑의 마음을 널리 알렸으며 오후 6시에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다함께 즐기는 한글 음악회' 공연이 열려 문화와 함께 한 한글의 우수성을 실감하게 했다.



이경 기자 인연 우리말



전라북도 우리말가꿈이 나라사랑 한글사랑 광복절 퍼포먼스

손도장 태극기 퍼포먼스와 번개 춤사위 연습 도전골든벨 한글사랑 놀이마당 순으로 진행

전라북도 우리말가꿈이를 아시나요? 범국민의 바른 언어 사용과 비방직한 한글문화 전파에 앞장서는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인 우리말가꿈이는 원래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전국적인 활동으로 추진됨에 따라 올해 처음 전라북도에 우리말가꿈이가 생겼다. 이 전라북도 우리말가꿈이들이 8

월,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광복 70년 손도장 태극기 퍼포먼스, 한글날 기념행사 번개춤사위 연습, 우리말가꿈이 도전골든벨, 한글사랑 놀이마당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말가꿈이들은 "마음을 담아 한 명 한 명, 한 손 한 손 정성스레 손도장을

찍어가며 한 광복 70년 손도장 태극기 퍼포먼스가 단연 최고가 아닐까 싶다."며 "나라말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처럼 우리말가꿈이들의 모든 활동에서는 한글 사랑도, 나라 사랑도 엿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 말·글로 사랑과 배려의 언어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는 우리말가꿈이들은 이날 행사를 기점으로 앞으로도 한글사랑, 나라사랑을 응원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진이인 대학생 기자

경상대 국어문화원 우리말가꿈이 한글 큰잔치



경상대 국어문화원이 제569돌 한글날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임규홍, 국어국문학과 교수)은 제569돌 한글날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한글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경상대

교양학관 일원에서 우리말가꿈이 한글날 큰잔치 '인연 우리말' 행사가 열렸다. 낮 12시 30분부터는 '공공언어 바로쓰기 홍보 활동'을 했다. 공공언어·방송언어 관련 문제를 맞춘 직원에게 물품지와 불입 쪽지 등 상품을 제공했다.

이어서 '사투리 물병 만들기 행사'와 '한글 왕을 찾아라' 행사를 진행했다. '바스' 단어 쓰기에 참여한 학생과 교직원에게 사투리 물병 만들기 체험권을 제공했다. 토박이말과 가정·청소년언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행사이다.

'한글 왕을 찾아라' 행사에서는 하·중·상 문제를 맞춘 사람에게 한글 관련 상품을 제공했다. 불입 쪽지, 한글 연필, 사투리 물병, 한글 가방을 주고, 한글 왕에게는 한글 달력을 증정하는 등 우리말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용태 기자

부산 우리말가꿈이 '우리말글 사랑 큰잔치' 이끈다

동아대 국어문화원이 한글날을 맞아 9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우리말글 사랑 큰잔치'를 개최했다.

부산 우리말가꿈이 회원들이 함께 한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후원, 부산시민공원 내 혼적극장 주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글오감체험터가 마련되어 우리말글을 '만나다', '들다', '만지다', '쉬쉬다', '맛있다'라는 테마로 '우리말 되살리기 UCC 공모전 수상

동아대 국어문화원 한글날 행사에 함께

작 상영', '한글을 소재로 한 공예품 만들기', '식혜와 떡의 어원 알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개최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부산시민공원 특설무대에서는 '말의 힘'을 주제로 지난해 주시경학술상 수상자인 동아대 하치근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의 특강과 '제2회 부산 사투리 뽑내기 대회(본선)', '외국인 우리말 겨루기 대회' 등이 함께 진행되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글이 소중함을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Nothing protects quite like HJ PnA

사/업/분/야

- UPS 설비구축
- 항온항습기 설비구축
- STS 설비구축
- Generator 설비구축
- Battery 설비구축
- 가스소방 설비구축
- 수변전 설비구축
- 전기공사
- IDC 컨설팅 서비스

HJ PnA

HJ PnA는 Mission Critical 인프라가 요구되는 반도체, 전산센터, 병원 발전시스템에 UPS, 배터리, 발전기, 공조시스템 등을 고객의 요건에 맞춰 최적의 설계, 시스템 조항, 정밀 시공 그리고 안정된 유지보수, 관리까지 하는 Never Stop Solution 으로서 소중한 고객의 재산, 데이터 및 정보 생산품을 지키는 가장 든든하며 신뢰 할 수 있는 파트너 입니다.

Be Happy and Joy with HJ PnA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7길 49 본사(공정) : 경기도 광주시 오묘읍 수레실길 14 TEL. 02 2281 0035 / www.hapjeon.co.kr

언어문화개선 위한 특별 공연 '안녕! 우리말' 활짝

세계적인 한류 개그팀 '옹알스'가 마임, 저글링, 성대모사 등을 활용



한류 개그팀 '옹알스'

'세계 공통어는 웃음!' 지난 28일,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특별공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립국어원이 주관하는 2015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특별공연 '안녕! 우리말'이 국립국어원 사비마루 무대에 오른 것이다.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한류 개그팀 '옹알스'가 마임, 저글링, 성대모사 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바르고 고운 말쓰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난버벌 퍼포먼스 공연이다. '옹알스'는 "세계 공통어는 영어가 아닌 웃음이다"를 내세우며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코미디 그룹으로 관람객들에게 유쾌하고 교육적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하였다.

조흥태 기자

"참가 준비하는 동안 언어에 대한 심각성 깨달아"

울진교육청 2015학년도 학생 언어문화개선대회 참가자들 소감 밝혀 학교별 예선을 거쳐 출전 초등 25개팀(산문) 중등 25개팀(UCC) 참가

청소년들의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 울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 27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학생 언어문화개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바른말·고운말 사용을 통해 언어 폭력 없는 행복 울진교육을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별 자체 예선을 거쳐 출전한 초등 25개팀(산문) 중등 25개팀(UCC)이 참가했다.

대회 결과는 전문 위원들의 엄격한 심

사를 거쳐 후포고등학교 최혜연 등 4명으로 구성된 언프리티 언어폭력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작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학교에서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창작 UCC를 만드는 동안,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언어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심각했는지 스스로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이번 UCC 공모전을 통해 다 같이 반성하고 과감히 개선돼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

용을 생활화 하자"고 다짐하였다.

울진교육지원청 박기환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는 "최근 학교폭력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증대되는 등 모든 폭력의 중심에 언어폭력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개선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을 생활화하여 밝고 맑은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모두 행복한 학교생활이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태 기자

대구교육청, 학생용 언어문화개선 자료집 개발·보급 추진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문화 확산을 위해 언어문화개선 자료집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보급한 교사용 자료집인 '행복한 수업을 만드는 교사용 언어'에 이어 학생용 '친구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를 개발·보급한다. 자료집은 초등학교 4, 5, 6학년 대상으로 배부되며 10월 26일(월)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감, 교사 440명을 대상으로 언어문화개선자료 활용 연수도 실시하였다.



2014년부터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협력 학습을 통한 교실수업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학습은 2인 이상의 대화가 매우 중요한 학습 방법인데 학생 사이에 욕설이나 거친 언어로 인해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많았다.

다는 점에 따라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바른 언어 습관을 형성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용 언어문화개선 자료집'을 발간, 배부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생활에서의 욕설 사용 실태 및 순화 대책(양명희, 2010)' 보고서에 따르면 욕을 '친구'로부터 습득하였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26.4%, '영화' 1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욕을 처음 사용한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58.2%로 가장 많았다.

자료집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읽기 능력을 고려하여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화 형식이나 역할극 대본 형식 등으로 제작되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23권의 인문 관련 도서 속에 있는 문장들 중에서 교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인용 가능한 내용을 상황 중심으로 묶어 인용 방법과 예시를 담은 형태이며 손에 쥐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소책자로 개발해 학생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은 초등학생 때부터 욕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에는 거칠고 무뚝뚝한 말과 비속어, 욕 등의 직설적 화법을 교정하기 더욱 어려워진

지난 3월 대구시교육청이 개발 보급한 '교사용 교사용언어문화개선 자료집'에 따

라 인용과 비유의 교사용 언어를 수업에서 실천하고 있는 서재초 윤명신(남, 42세) 교사는 "교실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인사말 또는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과의 소통의 방법으로 속담, 사자성어나 명언을 활용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교사용어를 수업에 인용하기도 한다. 특히 이번에 보급된 학생용 자료집 '친구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를 함께 교실에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거친 언어가 부드럽고 따스해지는 출발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재초 김기현(13세) 양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큰 목소리로 서로의 잘못을 말하면 내가 잘못을 했지만 기분 이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속담이나 명언 등을 사용하여 이야기하니 서로가 그 뜻을 생각하게 되고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도 더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월 보급된 교사용 교사용언어문화개선 자료집에 이어 학생용 언어문화개선자료집을 보급하게 되어 교사와 학생의 교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서 교사, 학생 간에 교실수업이 개선되고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언어문화가 학교,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나갈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정지희 기자

상주교육지원청, 언어문화개선 주간 운영 바른 언어 캠페인

청소년 폭력 문제 이면에는 언어폭력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언어문화개선 활동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걸)이 10월 16일(금) 상산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운영하였고, 상산초등학교 교문과 뒷문에서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폭력 예

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조흥태 기자

칼럼 | 이현원 / 칼럼니스트

행복총량의 법칙은 기쁠 때 어려움에 대비하자는 유비무환 자세



최근에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행복과 지랄 총량의 법칙'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이 말에 관심이 끌려서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 보았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란 사람이 한 평생 살면서 해야 할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한 분이 있다. 한 동네 밭대 김두식 교수의 저서 '불편해도 괜찮아'에 나오는 말인데, 듣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자아낸다. 이 법칙에 의하면, 모든 인간들은 평생 쓰고 죽어야 하는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고, 죽기 전까지 반드시 그 양을 다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람은 사춘기에, 어떤 사람은 늦바람이 나서 늦깎이에 마침내 지랄의 총량을 채우게 된다고 한다. 지랄을 곁에서 바라보는 힘겨운 사람들에게 조금 위안을 갖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과연 이 법칙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 다툼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총량의 법칙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를 원용하면 여러 가지 다른 법칙을 만들 수 있어 재미가 쏠쏠하다.

예를 들면 '주량(酒量) 총량의 법칙', '고민(苦悶) 총량의 법칙', '질병(疾病) 총량의 법칙', '행복(幸福) 총량의 법칙'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 중 '행복 총량의 법칙'에 대해 좀 깊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원칙은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데 한도가 있다고 보는 제도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바라지만 총량의 제한으로 마냥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불행

총량의 법칙'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의 삶엔 좋은 운수만 지속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고통이나 불운이 같이 따라다닌다. 인생을 희비쌍곡선에 비유하든지, 신은 사람에게 오복(五福)을 다 주지 않는다는 말과 일맥상통 한다. 속담에서 '취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라든지, 한자성어의 '호사다마(好事多魔)나 '고진감래(苦盡甘來)' 등과 뿌리를 같이 한다고 할까.

어찌 보면 우리 삶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많이 겪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났는지 모른다. 그래서 인간 세상을 고해(苦海)로 일컫는가 보다.

선인(先人) 중에는 '석복(積福)을 좌우명으로 삼아, 복이 있을 때 복을 저축했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꺼내 쓰자는 사람이 있었다. 기쁠 때 어려움에 대비하자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너무 행운이 계속되고 있을 때, 낮은 자세로 남에게 봉사를 한다든지, 물심양면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싶다.

이렇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평생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행복 총량의 법칙'이 일리 있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일생이 순탄했던 사람이라도 불우한 때가 있었고, 한평생 불운했던 사람도 행복한 때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운명론적인 단란 사고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영구적인 행복과 불행은 없으니 '행복 총량의 법칙'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힘들고 고혹스러운 때 곧 '즐거울 때가 오겠다' 하고 위로를 삼는다는지, 또는 '지금의 고난은 나만이 겪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사람과 함께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슬픔이 가벼워진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가시밭길 언덕을 오르다보면, "오늘은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 내일은 밝은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행복의 총량이 사람마다(各自)에게 적용된다면, 한편으로는 인류 전체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지구상의 인간 중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행복이란 개념이 주관적이고, 물질의 것대로만 쟁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이 전체의 20%, 30%대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행복 지수'를 산출하는 객관화된 계량 방법을 개발하여 개인별로 측정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인 가치 요소로 보아 '행복하다' 또는 '행복하지 않다'로 구분해 볼 때,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리라 본다. 여기에도 행복 총량의 법칙은 예외 없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칙에 의하면, 내가 운이 좋은 노력의 결과로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만큼 어디엔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반면에 나의 불행이 누군가 남의 행복 때문이라고 오히려 위로나 긍지를 느낄 수 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남보다 뛰어나 만족한 삶을 산다고 오만해서는 안 될 일이고, 불우하다고 해서 자포자기나 슬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도 안 된다.

따라서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복 주머니 이기에, 조그만 일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행복한 위치가 있는 사람이 불행한 처지의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나의 불행을 남이 대신해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출고 배고픈 이웃들을 위해면 않는 공동 운명체 의식이 요구된다.

한편, 행복이라는 상생곡선의 꼭대기를 지나 불행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는 의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칼럼 | 정문호 / 서울대 AMP로타리클럽

"훌륭한 봉사를 통해 얻는 행복감은 인간성 회복의 길"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이란 단어는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

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참된 기쁨과 자기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더불어 사는 삶이란 곧 나눔의 삶을 의미한다. 돕고 나누고 서로를 채워가는 과정이 더불어 사는 삶인 것이다.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였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공동체적이라는 것이다. 이웃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존재 공동체'이다.

인간의 행복은 개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부를 받는 사람의 행복 때문이 아니라 기부한 사람의 행복감 때문이다. 18세기 프랑스 작가 나폴라 샹포르의 말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오래가는 즐거움이다. 받은 기쁨보다 준 기쁨이 더 오래 남기 때문이다.'

기부와 봉사는 아무리 그 뜻이 순교해도 감동할 수는 없는 것이다.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봉사는 기쁨을 받는 기쁨보다 몇 배나 크다'고 말한다. 봉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타심과 이기심을 함께 충족시키는 드문 덕목이다. 기부문화가 미국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은 기부를 받는 사람의 행복 때문이 아니라 기부한 사람의 행복감 때문이다. 18세기 프랑스 작가 나폴라 샹포르의 말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오래가는 즐거움이다. 받은 기쁨보다 준 기쁨이 더 오래 남기 때문이다.'

기부와 봉사는 아무리 그 뜻이 순교해도 감동할 수는 없는 것이다.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봉사는 기쁨을 받는 기쁨보다 몇 배나 크다'고 말한다. 봉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타심과 이기심을 함께 충족시키는 드문 덕목이다. 기부문화가 미국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간은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병든 공동체 속에서 불행을 느낀다. 공동체가 분열되고 대립될 때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과 양극화의 고통에 직면해 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경제적 어려움 호소하는 계층이 많다. 이런 사회적 어려움이 많을수록 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가 절실하다.

기부를 통한 나눔은 이런 사회양극화의 그늘을 줄이는 묘약이 될 수 있다. 나눔수록 고층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웃사랑의 온기를 느낄 때 사회통합도 가능하다.

시장 경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비율으로써 스스로를 채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나누지 않고는 참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나눔은 상생의 비결이다.

나눔은 여유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과 나눔을 통해 서로가 발전해 갈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자신의 시간을 낼 수도 있고,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세상 그 누구도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로타리 봉사도 이웃에게 깊은 배려와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일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으로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기본 원리로서 기쁨과 행복을 얻고자 실천하는 사람은 '봉사는 기쁨을 받는 기쁨보다 몇 배나 크다'고 말한다. 봉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타심과 이기심을 함께 충족시키는 드문 덕목이다. 기부문화가 미국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인생의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96세의 노년층 강연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남을 위해 지식이든, 무엇이든 나눌 수 있으면 행복해진다. 내가 소유를 위해 산 것은 없어지고 남을 위해 산 것은 보람으로 남는다."

나눔은 최고의 소통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이라는 말이 있다. 아침저녁 쌀쌀한 가을바람이 겨울을 재촉하고 있다.

힘든 겨울을 앞둔 이웃과 마음을 함께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으로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칼럼 석호익 / 통일IT포럼회장,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사이버범죄 수사와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경찰청은 날로 지능화 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를 수사할 경찰을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해킹·악성코드 분석가, 시스템·네트워크엔지니어링, 전화·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의 정보와 사적인 기록을 복구하여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분야의 전문가 등 60명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사이버범죄를 전담할 사이버안전국을 신설하였고 올해에는 전문가를 특별 채용해 사이버 대처 능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사이버 수사팀은 지난해 경찰관 1명이 265건을 처리해 평균 80~150건을 처리하는 타 부서보다 업무부담이 크다. 사이버범죄가 매년 30%이상 폭증하면서

현재의 사이버 수사 인력1040명이 1년간 처리한 사건은 27만 건 이상이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지난해 말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한 자칭 원전반대그룹이 최근 한수원을 넘어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등에서 해킹으로 빼낸 정부자료 10건을 트위터에 추가 공개하였다. 지난해 이후 열 번째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사회혼란을 조장하고 사이버 심리전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청와대에 안보특보와 안보비서관을 신설하고 국가주요기반시설의 모의 해킹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원전반대그룹의 해킹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지난 3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해커가 사용한 트위터 계정을 삭제한 조치가 전부이다. 세계적으로 해커 기술 등 사이버범죄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그 대응 능력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는 개인과 단체 심지어 정부까지 경제적·정치

적·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경찰청의 이번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 60명의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다. 해킹, 인터넷 사기, 금융 범죄, 개인정보 침해, 불법 콘텐츠 범죄 등 다루어야 할 사이버범죄가 다양하고 계속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 수사 인력의 양적 확충과 함께 분야별 전문 역량의 확보와 질적인 수준 제고도 시급하다. 또한 해킹범죄를 막는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 해커(white hacker)도 국가차원에서 육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해킹방어대회인 데프콘(DEFCON)23 CTF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우수한 쾌거를 이룸으로서 사이버보안 강국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사이버보안수준은 크게 미약하다. 사이버부대만 하더라도 미국은 18만 명, 중국은 8만여 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도 정찰총국 산하에 121부대를 두고 3천여 명의 전문가를 두고 세계 3위권의 해킹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5백여 명 수준으로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서도 크게 미흡하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해 온다면 이를 방어해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인력과 기술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보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길은 우리의 정보는 잘 지키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적시에 획득하는 것이다. 조직·인력·기술면에서 IT 강국에 걸 맞는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여야가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정원 해킹 논란도 불법이 있다면 엄중 조치하되 국정원의 사이버 첩보활동의 방법·대상·역량 등 모든 정보체계가 노출되게 해서 우리나라 안보역량을 약화시키는(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인권침해를 방지할 장치와 함께 정당한 사이버 정보활동을 강화해서 인권과 안보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사 설

한글날! 신어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한다. 양극화 갈등의 시대에 다시 한번 곰씹어봐야 할 속담이다. 각자의 요구조건을 말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고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켓도 들고 현수막도 올린다. 그 말을 통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말이 곱게 하려면 가는 말이 어때야 할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가는 말과 오는 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내고 싶은 말'만 하면서 오는 말이 고와질 것으로 바라는 것은 역시 갈등의 사회를 양산하게 된다. 소통이 필요한 사회에 중요한 것은 역시 말의 힘이다. 그리고 글의 힘이다. 한글창제 569돌을 맞아 행정자치부는 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축식은 '한글, 미래를 밝히다'를 주제로 한글관련 단체와 정부 인사, 시민들과 학생, 학부모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 유공자 포상과 경축공연으로 이어졌다. 경축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광복 70돌이 되는 올해 한글날은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의 말과 글도 모진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말과 글의 수준은 그 나라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과 글들이 있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황총리 또한 말과 글이 올바른 소통의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가운데 2015 한글날을 맞아 하루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신조어가 눈길을 끈다.

'꼬들남', '린백족', '먹부심', '이슈력'... 이 단어들은 지난해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신어(신조어)이다. 꼬들남은 꼬시고 싶은 들이온 싱글 남자를 줄여 쓴 말로,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다시 독신이 됐지만 여전히 이성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남자를 가리킨다. 린백족(lean back+族)은 의자나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를 지칭한다. 먹부심은 먹는 일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 이슈력(issue+力)은 사람들이 서로 다루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이런 신어들은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익숙해졌을 법도 하지만 여전히 외계어를 대하는 것처럼 생소하고, 그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다. 언어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신조어들이 나올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신어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어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의식의 차이로 인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한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신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국어학계는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또래 언어의 상당수는 신어가 아니라 은어로 봐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라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신어는 상당수가 등록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언어가 은어일지 신어일지 가리는 문제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말과 글은 정신을 표현하는 소통의 도구이면서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사회갈등비용을 줄이는 선풍운동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악플의 사회갈등비용이 한 해에 300조 원에 이른다. 치매환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한해에 약 8조원,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이 8조 9205억 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악플에 의한 사회갈등비용은 30배 이상이다. 악플의 활동도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며 SNS의 파급효과로 인해 그 영향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갈등비용 또한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악플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장난스럽게 시작되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장난스럽게 시작한 악플이 습관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치명적인 손실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선풍을 습관화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악플러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선풍운동은 남의 말과 글에 선풍을 달아주면 선풍을 받는 사람과 선풍을 다는 사람 모두 행복해지며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더욱 행복해지는, 또 잘되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대신 잘되는 사람이 더욱 잘되도록 돕는 '인터넷 정신문화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 최근 학생 인성교육 방안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선풍운동을 도입한 울산에서는 선풍운동에 참여한 이래 학교폭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인성교육으로도 그 가치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선풍달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 1차 조사 시(12년 2월) 울산지역 학생의 언어폭력 피해율이 40.7%에 달했으나, 선풍달기 운동을 한 이후 조사(12년 10월)에서는 5.6%까지 감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13년 1월~4월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전년 동기(2012년 82명)보다 82%로 크게 감소하였다. 선풍의 용어 표기인 sunfull은 full of sunshine을 의미하며 햇살이 가득한 사이버 세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상징 꽃은 해바라기(sunflower)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상에 악플이 한창 올라가더라도 선풍이 달리게 되면 환한 해바라기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키면서 '그래요' '그렇군요'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고 악플 일색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 된다. 이렇게 선풍은 감정적으로 상대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네티즌들에게 다정한 자신을 생각해 줄 기회를 갖게 해주고 악플이 주도하는 댓글 문화를 건전한 토론문화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선풍문화가 생활 속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사회갈등비용을 범국민적으로 인식하고 일선현장인 학교에서부터 일찍 교육에 힘쓰는 악플로 인한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칼럼 이충재 / 시인, 칼럼니스트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명력이 왕성한 거대한 우주선이 침몰하는 것처럼 중심축이 자꾸만 흔들리고 있다고 경

모습 보다는 변형된 유형의 자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듯 발명, 발견이란 미명아래 이미 설정된 개념을 추종하는 추세이다 보니, 인간의 가치, 생명존중의 사상이 쇠락해지는 슬픈 현실 속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듯 인상을 지을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답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은 인정한다. 인정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시켜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까닭에 일어나는 그 분명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이 '~답게' 운동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연속이다. 아니 이 운동을 시작조차 하려고 들지 않고 자꾸만 피하려고 들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무슨 일든 입문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왜, 그 일을 하고자 하는가? 또한 최소한 그 일을 일생 업으로 생각하고, '그답게' 살 자신이 있는가? 이 '~답게' 운동은 다원성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 역할을 버리고 타인의 역할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역할을 제 역할인양 탐욕을 부리며 사건화 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제기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잘 하고

'~답게' 살아가는 운동에 동참하자

있는가?라고 물으면 늘 대답은 모호하고 결과는 부정적이다. 학자는 학자답게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저마다 쉽게 유혹에 빠져 학자가 정치관으로, 다시 학교로, 연예인이 정치관으로 이윽고 다시 브라운관으로, 경제인 역시 정치관에서 다시 기업으로, 오락가락하면서 국가의 안보와 살림과 신뢰에 치명상을 입혀 왔다는 것이다. 양심적인 건 건강한 의식의 소유자가 없다는 말인가? 실력이나 자신이 감당할 능력 밖의 일이라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만한 그런 인문학적 인제가 없다는 말인가?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나라살림은 거리의 눈 먼 재정과도 같다는 것인가? 이 놀이 해 먹으면 또 저 놀이 채워놓는 듯 술수를 보이다가 이윽고 그놈이 똑 잘라먹고, 언제나 그 부족분은 애매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어디 이뿐만인가,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사회 조직이 안고 있는 건강성에도 적신호란 상시 등이 들어와 위기의식을 조장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대통령을 위시하여 유지원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답게' 살아가는 운동에 동참해야 할 때다. 교육이든 문화운동이든 핑계 말고 이 운동에 전적으로 동참해

야 할 때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돌아가 제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정직성과 강한 용기를 지닌 채 그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종교, 교육자들은 역시 맡겨진 일로써 사람 살리고 위로하고 양육하는 일에 지혜를 모아 헌신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운동선수들은 운동 그 분야에서, 학생은 학교와 가정에서 기업가는 기업 경영현장에서 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 저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하면서 묵묵히 살아가야 하는 일이 맞는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때, 가장 자기답게 살아가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 원칙이 지켜 질 때 불협화음이나 부정, 부패 현상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투명하고 밝은 민족과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국민이 국가를 믿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기업가와 근로자,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고 있는 병력 역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에 가까이 투자금액을 늘려 경제적, 문화적 부강한 민족의 터전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후로 국민 모두가 이를 명심하고 저마다 '~답게' 살아가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기고 김숙향 / 청년행복캠페인 '힘 HIM' 대표



정치권이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등록금인하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반값등록금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말았다. '반값등록금 사망사건'은 정치권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반값등록금에 한번 속았던 청년들은 이제 정치권이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별로 믿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는 어떻게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필자는 무엇보다 진심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값등록금과 같은 단기적이고 자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지속될 때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신뢰는 조금씩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청년행복지수>라는 개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고용률, 청년결혼률, 출산율, 자살률, 청년소득, 생애 첫 주택구입 시 까지 걸리는 기간, 보육의 수월성, 노동시장에서의 청년 보호정책 등 청년행복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종합한 포괄적인 행복지표를 개발하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청년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청년의 삶을 진실로 걱정하는 정책이 마련되려면 무엇보다 해당 청년 정책이 얼마나 청년의 삶을 개선시켰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치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둘째, 무엇보다 청년의 삶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년문제는 한 때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다. 청년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문제는 나 같은 엄마들의 문제이고 아버지들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다. 청년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기에 접어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진화하고 있는 지 퇴보하고 있는지 지표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사회적인 거울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요즘 <중년실업문제>를 겪고 있다.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일본의 청년들은 대학을

청년 행복지수 개발이 절실하다

졸업해도 일자리가 거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나마 하늘에 별 따기 식으로 취업해도 대졸 초임 수준이 낮고,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등에 업고 사회에 나오는 비중에 쓸 돈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취업도 돈을 못 쓰고 취업을 못한 사람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청년실업의 미래는 중년실업이었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20년 전의 청년들이 지금까지도 실직자나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젊은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사회활동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중년이 된 이후에도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사례는 진정한 청년정책이 얼마나 중요하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경고이다. 우리는 커다란 위기 앞에서 보다 차분하고 순차적인 접근법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행복지수>의 개발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청년행복지수>는 진정한 청년정책 개발의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젊음에도 일자리가 거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나마 하늘에 별 따기 식으로 취업해도 대졸 초임 수준이 낮고,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등에 업고 사회에 나오는 비중에 쓸 돈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취업도 돈을 못 쓰고 취업을 못한 사람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청년실업의 미래는 중년실업이었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20년 전의 청년들이 지금까지도 실직자나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젊은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사회활동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중년이 된 이후에도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사례는 진정한 청년정책이 얼마나 중요하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경고이다. 우리는 커다란 위기 앞에서 보다 차분하고 순차적인 접근법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행복지수>의 개발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청년행복지수>는 진정한 청년정책 개발의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기고 김숙향 / 청년행복캠페인 '힘 HIM' 대표

청년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애정표현이 단순하게 선거용 슬로건으로 끝나 사례는 많다. 몇 년 전, 청년에게 힘이 되지는 취지로 반값등록금이 이슈가 된

Table with 2 columns: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풍인성신문' and '2014년 11월 28일 창간'. It lists the publisher (Min Byung-hyeon), editor (Yeo Myeong-mi),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unfull.



안녕! 우리말

우리의 얼굴인 말과 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꽃필수 있도록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에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쉬운 말로 국민과 통하는 공공언어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정부 정책을 알립니다.
-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로 국민과 소통합니다.

품격 있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 아름다운 방송언어로 언어 환경을 풍요롭게 가꿉니다.
- 배려와 존중의 예절을 지키는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기성세대의 관심과 청소년의 참여로 가꿔가는 청소년 언어

-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친구를 대합니다.
- 격려와 위로의 대화로 희망찬 삶을 만듭니다.

'안녕! 우리말'은 심각한 언어 파괴로 상처받은 우리 말과 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이름입니다.

